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법정행

제주지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A경장 구속 기소
“상급자 지휘·감독 부재… 실종 처리시스템 부실 작동”
경찰, 간부·팀원 8명 ‘직무유기’ 수사·대기발령 조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은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부재했고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것으로 봤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30대 A경장을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자 30대 여성과 지난 7월 2일 실종자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실종자들과 연관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관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4개 검사실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한 제주지검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제포렌식, 피고인·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수사결과에 대해 제주지검은 “A경장은 실종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의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며 “범행은 A경장이 혼자 야간 담당근무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

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지검은 A경장이 내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청 전한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생활임금 시간당 1만2569원… 3.79% 인상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7.47% 높아

제주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56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79%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가 인상을 등을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과 위탁·공사용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소 1만 2569원을 받는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262만 6921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2027년 제주생활임금은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와 가계 지출, 최저임금, 경제·노동 여건, 제주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3.79%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강예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생생의 노동문화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 공사·용역의 도급·하수급 업체가 고용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극한 호우 특보 선행 목표 시간 미달”

제주기상청 목표보다 52분 짧아

제주지방기상청의 극한 호우 특보 선행 시간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제주기상청의 극한 호우 특보 선행 시간은 78분으로 목표인 130분보다 52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선행시간은 지난해에는 127분이었지만 78분으로 49분 줄어 들었다.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실제 강수가 특보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기상청이 얼마나 먼저 특보를 발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선행시간이 길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재난 당국이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 등 사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기상청의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제주를 포함해 평가 대상 8개 지역에서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부미현기자



오징어 말리기 좋은 날 19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서 마을 주민들이 오징어 말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추석 연휴 24시간 안전대응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생활환경·상하수도·감염병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폭력·

교통사고·실종 등 위험상황에 대응한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상황실과 문 여는 병·의원 139개소와 약국 84개소, 달빛어린 이병원 4개소, 공공심야약국 7개소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과 식중독에 대비해 검사·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4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고 24시간 비상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상하수도본부도 연휴 기간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제주도는 교통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송대책 상황실과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항공기 결항·지연 시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이동 불편에 대응한다.

오소범기자

유류예산 소진… 해경 합정 운항 중단 위기

유류비 상승 한몫… 해경, 고속운항 최소화 등 조치
문대림 의원 “핵심 운영비 예비비 사후보전 개선을”

제주해역의 해양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합정 유류예산이 이달로 사실상 소진돼 운항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경비함정 유류예산은 1075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400만 원, 12.5% 감소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8당 1376.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약 1890원이며, 9월에는 1990원까지 상승했다. 현재 남은 유류예산은 약 127억 원으로,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사실상 소진된다.

항공유 가격도 연초 8당 1050~1100원에서 최근 1600~1800원대로 올랐다. 급격한 유류비 상승으로 현재 확보된 항공유 예산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이 경제속력 준수

와 불필요한 고속운항·유동경비 최소화, 기동훈련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적과 중국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 등 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해경이 예비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요구액이 감액돼 제주해역 중국어선 단속과 이어도·잠정조지수역 감시, 수색·구조 등 필수 임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으며, 야간과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과 정선명령 불응도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운영비를 매년 예비비로 사후 보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 유류 절감 매뉴얼도 치안 수요와 필수 임무를 우선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영성기자 yswi1968@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